

오늘은 2022년 4월 세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4월 17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1.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 이번 화요일(19일)은 아침예배를 하루 쉽니다.

저녁 기혼남성 성경공부도 한주 쉽니다.

목사님께서 남서울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3. 주일학교는 4월을 <찬양>드리는 달로 정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4. 5월29일(주일) 오후2시, 현악4중주 연주팀인 <로벤 스트링 콰르텟>을 초청해서 클래식 미니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중심 연주회입니다.

5. 거리두기와 관련해 정부지침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18일>부터는 교회를 포함해 모임인원제한이 없어지고,

<25일>부터는 교회를 포함해 식내 식사등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다음주일부터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처럼 주일예배를 두 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점심밥을 같이 먹고 오후예배, 주일학교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부터 어떻게 예배시간등을 바꿀지 논의하려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종료 이후의 예배, 신앙생활 등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6. 자가격리중인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코로나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지체들, 지인들에게 예배참석을 권면합니다

8. 오늘 신해웅 선교사님(일본) 가정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9. 해외출장(이철영-베트남)

10.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202-531785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농협 355-0070-8191-13 (예금주/언약교회)

신협 131-021-333882(대한예수교장로회 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